

멕시코만 원유 시추시설 폭발

WTI, 2일 연속 상승 75달러로 경총 ... 원유 생산 둔화에 비용 상승

멕시코만 원유 시추시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9월2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멕시코만 원유 시추시설 폭발사고로 석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해 75달러대에 올라섰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9월2일 오전 루이지애나주 중부 해안의 버밀리언만에서 남쪽으로 90마일 떨어진 석유시추시설 버밀리언-오일 380에서 폭발사고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해안경비대 관계자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후 석유시추 시설은 화재에 휩싸여 있다”며 “하지만 원유가 유출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석유 시추시설은 4월20일 폭발 및 화재사고가 발생한 석유시추시설 디프 워터 호라이즌으로부터 서쪽으로 2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전문가들은 폭발사고가 연안 굴착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굴착 사업 철회를 연기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오일 아웃룩 앤 오피니언의 칼 래리 사장은 “정부는 연안 굴착 사업을 유예할 명분을 지니고 있으며 멕시코만 지역에서의 생산을 약화시키고 비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2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WTI(서부텍사스 경질유)는 1.11달러(1.5%) 올라 배럴당 75.0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9월1일에도 WTI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지표가 호전되면서 2.8% 올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03>